

2022년 12월 1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18편 13~1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14(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3장 20~28절(구약p.773)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28. 나는 썩은 물건의 낱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 말씀선포 / 연약한 인생의 정직한 기도

고난당하는 것이 전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으로 크게 마음이 상한 욥은 그들을 향한 항변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욥이 드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참으로 이 기도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연약한 자의 간절하고도 정직한 부르짖는 호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도 예레미야 33장 3절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 있던 모든 문제를

1. 주저하지 말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 본문 20~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욥은 호소합니다. 사실 마음이 몹시 상하면 어느 누구에게든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든 당사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뢰고자 하는 내용들이 모두 좋은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의 마음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이러한 호소를 못 하게 막지 마시라는 요청입니다. 혹은 불경한 외침일지라도 제발 자신의 진심으로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 욥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께 모두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심에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진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쏟아 낸다 해도 자신을 내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보호자요, 지키시는 자이시며, 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 쏟아 놓아 하나님께 아뢰며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2.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 본문 23~28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낱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쏟아 놓습니다. 욥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십니까? 마른 낙엽과 검불이 부서지듯이 나를 부서뜨리시렵니까?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지은 죄들을 사소한 것까지 낱알이 들춰내서 엄하게 벌주시는 것입니까? 내 꼴을 좀 보십시오. 나는 썩어 버린 물건 같고, 좀 먹고 해진 옷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불신자의 불 경건한 도발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사여구나 경건한 표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서 표출된 날카로운 외침만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연약한 인간의 절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 당하는 욥의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로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일이 잘 안되고 실패해서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숙대발인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욥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믿음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잠잠히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당신의 한없는 은혜로 덮으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쓴 뿌리, 상처, 아픔 가시, 깊은 슬픔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바를 정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91(통413)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폐 회 / 주기도문